The Association between the Career of Accounting Manager and Discretionary Accruals
회계담당직원의 경력과 재량적발생액

Namchul Jung(First Author)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Hongik University
(*jnc1208@hongik.ac.kr*)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reer of accounting manager and discretionary accruals using newly available disclosure data in 2018 and 2019.
Empirical results showed a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the career of accounting manager and discretionary accruals. It is judged that the longer the career of the accounting manager, the more proficient to use earnings management using the accruals, and the closer between accounting managers and the executives. However, the positive association decreases when there is a CPA in the accounting department or when an accounting manager is registered with a related organization. This suggests that the existence of experts in the accounting department and the assignment of accountability to accounting staff have a positive effect on accounting quality.
This study has a contribution by empirically sugges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firm's accounting manager and accounting quality in an area where research is scarce.

Key Words: Accounting Manager, Accounting Career, Discretionary Accruals, Certfied Public Accountant, Enrollment to Related Organizations

Ⅰ. 서 론

선행연구에 따르면, 최고경영진(CEO),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임원의 개별적 특성(연령, 성별, 업무경험 등)은 기업의 재무보고품질에 영향을 미친다(Barua et al., 2010, Huang et al., 2012, Habib and Hossain, 2013, Francis et al., 2015, Zhang, 2019, Wells, 2020). 재무보고품질은 기업의 임원 뿐만 아니라 회계담당직원이 참여하는 협업의 결과로 볼 수 있으나, 임원의 다양한 특성 이외에 회계담당직원의 개별적 특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매우 드물다. 국내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인력의 특성과 재무보고품질 등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결과(Ryu et al., 2012, Moon et al., 2012, Ji et al., 2013, Yang and Yeo, 2016, Hwang et al., 2020)가 보고되고 있으나, 해당 연구는 통상적으로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Submission Date: 11. 22. 2021 Accepted Date: 12. 16. 2021

Copyright 2011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 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인적 투자(human capital investment)의 관점에서 수행되어, 재무보고 결산을 담당하는 회계담당직원의 개별적 특성을 분석한 연구라고 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재무보고의 1차적 생산주체인 회계담당직원의 경력 등 개별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회계담당직원의 여러 특성 중 회계관련 업무경력과 이익조정의 대용치인 재량적발생액과의 관련성을 조사한다. 이를 통하여 2018년부터 새롭게 공시되고 있는 회계담당직원의 경력 정보에 대한 시사점을 자본시장과 정책당국에 제공한다. 또한 회계관련 경력과 재량적발생액 간의 관련성에 있어서, 회계부서 내 공인회계사의 존재와 회계담당직원의 유관단체 등록 여부 등 회계담당직원과 관련된 또 다른 개별적 특성이 조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위하여 회계담당직원의 회계관련 경력 공시자료를 최초로 이용 가능한 2018년과 2019년의 3,310 회사-표본을 활용하여, 회계담당직원의 경력과 재량적발생액과의 관련성을 다변량 회귀분석방법을 통하여 분석한다. 이후 회계부서 내 공인회계사의 존재 여부 및 회계담당직원의 유관단체 등록 여부가, 경력과 재량적발생액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한다.

분석 결과, 회계담당직원의 회계관련 경력은 재량적발생액과 평균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회계담당직원의 회계관련 경력이 길수록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 수단의 활용이 용이하고, 회계담당자와 최고재무책임자 등 임원과의 친밀 가능성이 높아 재량적발생액과 양의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양의 관련성은 회계부서 내 회계전문가(공인회계사)가 존재하거나 회계담당직원이 유관단체(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에 등록된 경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회계부서내 전문가에 의한 자체 모니터링 효과와 회계담당직원에 대한 책임성 부여가 회계품질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해당 분석결과는 연도별 분석, 회계담당임원의 경력을 통제한 후의 분석, 회계담당직원의 경력을 0으로 기재한 표본을 포함한 분석 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한편 회계담당직원의 다른 특성에 대한 추가분석 결과, 회계부서의 규모 및 회계담당직원의 교육시간은 회계담당직원의 경력과 재량적발생액의 관련성에 어떠한 증분적인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회계담당임원의 회계관련 경력은 재량적발생액과 통계적인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아, 임원과 직원의 경력정보가 재량적발생액과 차별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공헌점 또는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흡한 회사 회계담당자의 특성(경력, 공인회계사 여부, 유관단체 등록 여부)과 회계품질 간의 관련성을 실증 연구결과로서 제시한 공헌점이 있다. 회계담당직원의 경력과 재량적발생액 간의 양의 관련성을 제시한 본 연구의 결과는 재무보고품질의 측면에서 회계담당 부서직원의 주기적인 직무순환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둘째, 본 연구는 회계부서 내 공인회계사의 채용과 유지, 회계담당자의 유관단체 등록이 일정한 재무보고품질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하여 정보의 생산주체인 기업뿐만 아니라 정책당국과 자본시장에도 회계담당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회계품질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셋째, 본 연구결과는 상장회사 회계담당자 실명제 등 기업의 회계역량에 대한 공시 강화를 추진 중인 정책당국의 정책방향이 합리적이라는 실증근거를 제시한다.

이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II장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III장은 연구표본과 연구방법론을 제시하고, IV장에서는 주요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및 한계점을 제시한다.

II. 선행연구 및 연구가설의 설정

2.1 CEO, CFO, 회계담당직원의 개별 특성과 재무보고품질

회계학 분야의 최근 연구는 대표이사(CEO) 또는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최고경영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demographic characteristics)이 재무보고품질에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고 있다.

먼저 연령과 관련하여, CEO 및 CFO의 연령은 경험의 정도나, 위험 또는 변화에 대한 저항 정도에 대한 대용치로 해석되어, 나이가 많은 경영진이 보다 윤리적이거나 재무적 안정성을 중시하여 재무보고품질과 양(+)의 관련성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Huang et al., 2012, Qi et al., 2018). 최고경영진의 성별과 관련해서는 여성 경영진은 조직에 대한 헌신, 윤리수준이 높아 이익조정에 덜 관여하거나(Barua et al., 2010, Huang et al., 2012),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수행한다(Peni and Vähämaa, 2010, Francis et al., 2015)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 최고경영진의 교육수준은 인지능력의 향상, 새로운 지식의 습득과 적용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Qi et al. (2018)은 교육수준이 높은 경영진일수록 회계기준이나 규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우회하여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을 수행함을 제시하였다. 최고경영진의 업무경험과 관련해서도 Qi et al. (2018)은 업무경험이 많은 최고경영진일수록 재무보고 프로세스에 대하여 숙달되어 있는 관계로, 회계기준의 유연성(flexibility)을 활용하여 이익조정을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에 해당하는 CFO는 위험회피적인 성향을 보여, 재무제표의 재작성 확률이 낮고(Aier et al., 2005), 재량적발생액 수준이 낮은(Rakhman, 2009) 등 높은 재무보고품질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

한편, CEO 및 CFO 등 임원의 개별적 특성에 대한 연구결과와는 달리 회계담당자 또는 직원의 특성과 재량적발생액 등 재무보고품질 간의 관련성에 대한 해외연구는 매우 드물다. Liang et al. (2021)은 회계부서 내 여성직원의 비율이 높을 경우 내부통제의 중요한 취약점 보고비율, 재무제표 재작성비율이 낮고, 발생액의 질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Call et al. (2017)은 직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C-level 경영진에게 고품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고의적인 부정이나 이상거래를 식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재량적발생액의 수준과 재무제표 재작성비율이 낮음을 보고하였다.

반면, 국내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인력의 특성(규모, 공인회계사 자격 여부, 평균경력)이 2002년부터 공시[1]되어 이를 활용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먼저 양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인력의 규모나 인적 비율(전체 회사의 인원 수 대비 차지하는 비율)은 발생

1) 우리나라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담당인력 특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이유는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효과적 운영 정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Lee et al., 2010).

액의 질과 양의 관련성(Yang and Yeo, 2016)을 보였고, 회계오류(Ryu et al., 2012), 잠정이익의 수정가능성(Lee et al., 2012),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가능성(Hwang et al., 2020), 내재자본비용(Kim et al., 2013)이 낮았다. 질적 특성 중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인력 중 공인회계사의 수가 많을수록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 정확성(Shin et al., 2014)과 이익지속성(Choi, 2020)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인력의 평균경력이 높으면 발생액 이익조정(Ji et al., 2013)과 실제 이익조정(Jung and Ma, 2012)이 감소하고, 감리지적가능성(Moon et al., 2012)과 회계오류의 발생 가능성(Ryu et al., 2012)이 낮았다. 외부감사인의 위험평가를 활용한 연구에서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담당인력이 규모가 클수록 감사인의 감사위험이 낮게 평가되어 감사시간이 낮게 투입됨이 보고되었다(Suh et al., 2018).

요약하면 국내의 선행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인력의 양적 규모(인원 수)나 질적 측면(공인회계사 자격 여부 및 평균경력)이 기업의 재무보고품질과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선행연구에 사용된 변수는 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인력에 대한 회사의 인적투자의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2]로서, 회계담당직원의 개별적 특성을 포착하는 변수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2.2 경력 및 업무경험과 재무보고품질 간의 관련성

본 연구의 관심사항인 회계담당직원의 경력 또는 업무경험과 재무보고품질과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인력의 특성 및 이들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Moon et al. (2012)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담당하는 인력의 평균경력이 길수록, 이들이 해당업무를 반복적을 수행함으로서 업무경험이 축적되고, 해당 실무를 깊게 이해하며 회계정보의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거나 적발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이 효과적일 수 있고, 그 결과 감리지적 가능성 감소와 연관됨을 발견하였다. Kim and Jung(2020)은 회계담당직원의 회계관련 경력연수가 길수록 감사인이 회계담당인력의 역량을 높게 평가하여 낮은 감사시간과 관련됨을 보고하였다. Ryu et al. (2012)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인력의 평균경력이 길수록 이들의 관련 업무에 대한 반복적 수행으로 학습효과가 증대되어 오류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하였다. 한편, Hong(2017)은 이익조정을 많이 하는 기업에서 임직원의 평균 근속연수가 짧음을 제시하여, 임직원이 윤리적이지 못한 기업에서 오래 근무하려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해외의 연구결과는 경력(업무경험)과 재무보고품질과 관련하여 다소 상이한 관점의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Qi et al. (2018)의 연구는 중국시장을 대상으로 회계 및 재무 관련 업무경험이 많은 임원은 재무보고 프로세스에 능숙하고 회계기준의 유연성(flexibility)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Zhang (2019)도 장기간 업무경험을 함께 한 management

2)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인력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인력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해당 자료 상의 인력은 실제로 기업에서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거나 자체 결산을 수행하는 인력과는 다른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 따라서 해당 자료를 활용한 결과로, 결산 및 재무보고를 담당하는 회계담당인력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결과 회계담당부서장 또는 직원과 관련한 정보를 2018년부터 새롭게 공시하고 있다.

team의 경우, 오랜 관행의 잘못된 회계처리에 대하여 적극적인 교정절차를 꺼리며 수동적으로 묵인(passive acquiescence)하는 경향이 존재하며, 그 결과 이익조정 수준이 높음을 제시하였다.

요약하면,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인력 또는 회계담당자의 경력은 이들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 역량, 전문성을 의미하여 높은 적격성과 낮은 업무오류도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해외의 연구에서는 업무경험 또는 경력이 이익조정과 관련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여, 경력과 재량적발생액 간에 다소 혼재된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 연구가설의 설정

기업의 임원 등 최고경영진이 중요한 회계선택 등 의사결정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재무제표 등 재무보고품질을 결정하는 정보를 산출하는 1차적 주체는 기업의 회계담당직원 등 직원으로 볼 수 있다. Dyck et al. (2010)에 따르면 기업의 직원은 명백히 정보에 대한 최선의 접근을 할 수 있으며, 어떠한 규제기관, 투자자, 외부감사인보다도 빈번하게 기업의 부정에 대한 폭로를 수행하여 왔다고 한다. 재무보고품질에 관한 한 회계담당직원은 회계정보에 대한 생산 및 접근 권한이 있으므로 이들의 경력 등 세부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선행연구에서는 회계담당직원의 평균 경력이 높을수록 해당 실무에 대한 이해도와 숙련도가 높아, 회계와 관련한 오류가능성이 낮음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으며(Jung and Ma, 2012, Ryu et al., 2012, Ji et al., 2013), 이들의 자체 모니터링 기능(Moon et al., 2012)과 업무적 역량(Kim and Jung, 2020)이 높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회계담당직원의 경력이 길수록 업무적 숙련도와 효율성이 증대되어 오류로 인한 회계품질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을 제시하며, 이 경우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을 나타내는 재량적발생액과는 음의 관련성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측면에서 회계담당직원의 경력과 재량적발생액 간에 오히려 양의 관련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첫째, 재량적발생액 증가를 통한 회계적 이익조정은 재무제표 재작성, 감리 등의 극단적 회계품질 저하가 아닌 회계기준의 유연성을 활용한 이익조정으로서, 회계담당직원의 회사별 특수한 회계실무에 대한 면밀한 이해와 부서 간의 업무조정 기술을 특히 필요로 한다. 이러한 회계기준의 이용 및 실무 상 업무조정의 역할은, 관련 업무에 대한 경력이 길어 이익조정 수단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회계담당직원에게 더욱 유리하게 작동할 가능성(Qi et al., 2018)이 높다. 둘째, 높은 재량적발생액은 업무효율성 저하나 실무능력 저하에 따른 결과이기보다는 회계관련 임직원 간의 협업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경력이 오래된 회계부서장 또는 회계담당직원일수록 최고경영진 등과의 관계나 친밀도를 중시하여 이익조정 동기를 가진 최고경영진 등의 이익조정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셋째, 회계관련 경력이 오래된 회계담당직원은 기존의 잘못된 업무처리 관행에 대한 이슈화나 교정을 회피하여 회계품질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을 Zhang(2019)의 연구결과는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같이 회계담당직원의 경력과 재량적발생액 간의 관련성은 단순한 오류의 발생 가능성보다는 이익조정 수단의 파악정도, 임직원 간 친밀도, 기존 업무에 대한 타성 등의 관점이 더욱 크게 작동할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첫 번째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연구가설 1: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회계담당직원의 경력과 재량적발생액 간에는 양(+)의 관련성이 존재할 것이다.

한편 회계담당직원의 경력과 재량적발생액간의 관련성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담당직원의 고유한 특성이 존재할 것으로 예측된다.

먼저 회계담당부서 내에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직원이 존재할 경우 경력이 긴 회계담당직원의 이익조정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공인회계사는 회계에 관한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전문가로서, 선행연구(Shin et al., 2014, Choi, 2020)에서는 공인회계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전담인력에 포함될 경우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하여 회계품질 개선에 공헌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익조정 동기와 수단을 보유한 경력이 긴 회계담당자의 경우에도 회계부서 등에서의 공인회계사의 존재는 이익조정의 의지를 낮추는 모니터링 수단이 될 수 있다.

한편, 금융감독 당국에서는 2018년부터 상장회사의 회계담당자에 대한 실명제를 도입하여, 회계담당직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하고 해당 직원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또는 코스닥협회 등 유관단체에 등록하게 하여, 회계담당직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관단체에 대한 회계담당 직원의 등록은 경영진의 분식회계 요구 등에 대한 회계담당 임직원의 책임감을 높이고, 이들에 대한 교육, 자문 등 회계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로 볼 수 있다.[3] 이에 따라 유관단체에 등록된 회계담당직원은 자본시장, 감독당국에 공개적으로 노출되어 정보접근성이 확대되고, 일정 교육시간 의무화 등 직원의 자체적인 책임의식이 제고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이 유관단체에 등록될 경우, 경력이 긴 회계담당직원의 재량적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 동기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약하면 회계부서 내의 공인회계사 존재와 회계담당직원의 유관단체 등록은 경력과 재량적발생액 간의 양의 관련성을 감소시키는 음(-)의 조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하여, 다음과 같이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연구가설 2: 회계부서 내에 공인회계사가 존재하거나, 회계담당직원이 유관단체(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에 등록된 경우, 회계담당직원의 경력과 재량적발생액 간의 양의 관련성이 약화될 것이다.

Ⅲ. 연구방법론

3.1 연구표본

〈Table 1〉 Panel A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의 선정과정을 제시한다. 표본은 회계관련 경력 및 유관단체 등록여부를 최초로 공시자료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2018년과 2019년의 상장회사 중 FnGuide에서 재무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4,282 회사-연도 표본을 최초 대상으로 한다. 이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결산월이 12월 말

3) 금융감독원 2017년 11월 24일 보도자료 "2017 회계개혁 TF 활동 중간 결과" 참조

〈Table 1〉 표본의 선정절차 및 분포

Panel A: 표본 선정절차

내용	표본수
2018년과 2019년 중 자산총계 등 FnGuide에서 재무자료를 이용 가능한 상장회사	4,282
(차감) 결산월이 12월 말이 아닌 표본	(79)
(차감) 금융업 및 보험업종에 속한 표본	(211)
(차감) 회계담당직원의 회계관련 경력이 0 및 확인 불가능한 표본	(325)
(차감) 그 외 재량적발생액 및 연구모형에 사용된 통제변수를 구할 수 없는 표본	(357)
최종표본	3,310

Panel B: 산업별 분포

업종	제조업	정보통신업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업	기타업종	합계
표본수	2,201	374	270	194	271	3,310
비중	66.50%	11.30%	8.16%	5.86%	8.19%	100.00%

Panel C: 연도 및 소속 상장시장별 표본

구분	2018년			2019년			합계
	KOSPI	KOSDAQ	소계	KOSPI	KOSDAQ	소계	
표본수	690	863	1,553	716	1,041	1,757	3,310
비중	20.85%	26.07%	46.92%	21.63%	31.45%	53.08%	100.00%

이 아닌 표본(79개 표본)과 금융보험업에 속한 표본(211개 표본)을 제외하였고, 회계관련 경력의 공시자료가 0, 공란 등으로 기재된 표본(325개 표본)과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나 통제변수를 구할 수 없는 표본(357개 표본)을 제외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3,310 회사-연도 표본을 연구표본으로 확정하였다. 〈Table 1〉 Panel B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대부분의 표본(약 67%)은 제조업에 속하였고, 정보통신업 및 도소매업이 각각 약 11% 및 8%를 차지하였다. 〈Table 1〉 Panel C는 소속 상장시장에 따른 표본의 분포를 제시하고 있는데 약 58%의 표본이 코스닥시장에 소속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 회계담당직원의 회계관련 경력의 측정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2018년 11월 1일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부터 기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의 공시내용에 추가하여 회계담당자의 교육, 경력 및 유관단체에 대한 등록여부를 공시하도록 의무화되었다. 이는 회계담당자의 세부정보에 대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하여 기업의 회계역량과 관련한 정보를 정보이용자들에 추가로 제공하고 상장회사의 회계담당자로서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관심변수로서 회계담당직원의 회계관련 경력을 사업보고서 중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서 수기로 수집하여, 이를 년수로 환산하여 측정(*CAREER*)하였다. 공시자료의 수집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기업은 주로 회계담당직원으로 주로 기업의 회계 및 재무총괄 등 담당부서장의 경력 등을 공시하였으나, 만약 일부 기업에서 여러 명의 회계담당자의 경력 등을 공시한 경우에는 가장 첫 번째 공시한 직원의 경력자료를 활용하였다.[4] 조절변수인 공인회계사 보유 여부(*CPA*)는 회계, 감사, 기타부서에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유자가 존재 시 1의 값을 갖는 지시변수로 측정하였다. 또 다른 조절변수인 유관단체 등록 여부(*ENROLL*)는 역시 사업보고서 중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의 공시사항을 참조하여 관련 회계담당직원이 등록된 경우 1의 값을 갖는 지시변수로 측정하였다.

3.3 재량적발생액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따라 이익조정 및 회계품질의 대용치로 재량적발생액을 사용한다. 재량적발생액(*DA*) 및 성과대응 재량적발생액(*PMDA*)의 측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Dechow et al. (1995)은 Jones(1991)의 재량적발생액 모형에 신용매출과 관련한 이익조정을 추가 고려할 경우 회사의 이익조정 행태를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식 (1)에 따라 총발생액(*TA*)에서 산업, 연도별로 추정된 정상적 발생액을 차감한 금액을 재량적발생액(*DA*)으로 측정한다. 한편 Kothari et al.(2005)는 성과에 따른 발생액의 차이를 추가 고려하기 위하여 자산이익률(*ROA*)을 추가하였고,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 식 (2)에 따라 성과대응 재량적발생액(*PMDA*)을 추가 측정하였다.

$$DA_{i,t} = TA_{i,t} - [\hat{\alpha_0}(\frac{1}{SIZE_{i,t}}) + \hat{\alpha_1}\left\{\frac{(\triangle REV_{i,t} - \triangle REC_{i,t})}{SIZE_{i,t}}\right\} + \hat{\alpha_2}\frac{PPE_{i,t}}{SIZE_{i,t}}] \quad (1)$$

$$PMDA_{i,t} = TA_{i,t} - [\hat{\alpha_0} + \hat{\alpha_1}(\frac{1}{SIZE_{i,t}}) + \hat{\alpha_2}\left\{\frac{(\triangle REV_{i,t} - \triangle REC_{i,t})}{SIZE_{i,t}}\right\} + \hat{\alpha_3}\frac{PPE_{i,t}}{SIZE_{i,t}} + \hat{\alpha_4}ROA_{i,t}] \quad (2)$$

TA : 총발생액(당기순이익-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기초의 자산총계로 나눈 값
$\triangle REV$: 매출액의 변화(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triangle REC$: 매출채권 변화(당기매출채권-전기매출채권)
PPE : 기말 현재 감가성 유형자산의 합계
ROA : 당기순이익을 자산총계로 나눈 값

3.4 연구모형

식 (3)과 (4)는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첫 번째 연구가설인 회계담당직원의 회계관련 경력과 재량적발생액 간의 관련성 분석을 위하여, 식 (3)과 같이 회계담당직원의 회계관련 경력(*CAREER*)을 관심변수로 두고, 2가지의 재량적발생액(*DA, PMDA*)을 종속변수로 설정한다. 재량적발생액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통제변수를 고려하고도, 관심변수인 β_1의 부호가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식 (4)는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가설 검증을 위하여 각 연구모형

4) 2명 이상의 회계담당직원을 공시한 경우 회사의 회계담당직원에 대한 적극적인 공시의무에 따라 직원의 경력과 재량적발생액 간에 차별적인 관련성이 나타날 수 있어, 이를 "Ⅳ장-4.4.3"에서 추가로 분석하였다.

에 공인회계사 자격 여부(*CPA*) 및 유관단체 등록 여부(*ENROLL*) 변수와 경력(*CAREER*)과의 상호작용효과(*CAREER*CPA, CAREER*ENROLL*)의 효과를 조사한다. 만약 회계담당직원의 회계관련 경력과 재량적발생액 간의 관련성에 있어서 공인회계사 자격 여부(*CPA*) 및 유관단체 등록 여부(*ENROLL*)가 조절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식 (4)의 모형에서 상호작용효과의 회귀계수인 β_4 또는 β_5의 부호가 유의한 양 또는 음의 값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재량적발생액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통제변수는 선행연구(Qi et al., 2018, Zhang, 2019, Park and Choi, 2009)를 참조하여 포함하였다. 재량적발생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회사의 규모(*SIZE*), 부채비율(*DEBT*), 대형 감사인 선임 여부(*BIG4*), 외국인지분율(*FOR*),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지분율(*LAR*), 손실 여부(*LOSS*), 성장성(*BTM*), 전기의 발생액 규모(*L1TA*),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비율(*CFO*) 및 사외이사 비율(*OUT*)을 포함하였다. 이후 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의한 산업별 더미변수(*ID*)와 연도별 더미변수(*YD*)를 포함하였다. 극단치가 실증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연구모형에 포함된 모든 연속변수는 1% 및 99% 수준으로 winsorizing하여 조정하였다.

$$DA(PMDA)_{i,t} = \alpha_1 + \beta_1 CAREER_{i,t} + \beta_2 SIZE_{i,t} + \beta_3 DEBT_{i,t} + \beta_4 BIG4_{i,t} + \beta_5 FOR_{i,t} + \beta_6 LAR_{i,t} + \beta_7 LOSS_{i,t} + \beta_8 BTM_{i,t} + \beta_9 L1TA_{i,t} + \beta_{10} CFO_{i,t} + \beta_{11} OUT_{i,t} + \Sigma ID + \Sigma YD + \varepsilon_{i,t} \quad (3)$$

$$DA(PMDA)_{i,t} = \alpha_1 + \beta_1 CAREER_{i,t} + \beta_2 CPA_{i,t} + \beta_3 ENROLL_{i,t} + \beta_4 CAREER_{i,t}*CPA_{i,t} + \beta_5 CAREER_{i,t}*ENROLL_{i,t} + \beta_6 SIZE_{i,t} + \beta_7 DEBT_{i,t} + \beta_8 BIG4_{i,t} + \beta_9 FOR_{i,t} + \beta_{10} LAR_{i,t} + \beta_{11} LOSS_{i,t} + \beta_{12} BTM_{i,t} + \beta_{13} L1TA_{i,t} + \beta_{14} CFO_{i,t} + \beta_{15} OUT_{i,t} + \Sigma ID + \Sigma YD + \varepsilon_{i,t} \quad (4)$$

1) 변수의 정의

DA : 수정 Jones 모형(1995)에 의한 재량적발생액

PMDA : Kothari et al. (2005)에 의한 성과대응 재량적발생액

CAREER : 회계담당직원의 회계관련 경력(년수)

CPA : 회계, 감사, 기타부서에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유자가 존재 시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ENROLL : 회계담당직원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유관단체에 등록된 경우 1의 값을 부여

SIZE :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DEBT : 부채구성비율로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눈 값

BIG4 : 대형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을 회사가 선임한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FOR : 기말 현재 외국인투자자 지분율

LAR : 기말 현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비율

LOSS :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BTM : 자기자본의 장부가치를 시가총액으로 나눈 비율

L1TA : 전기 발생액을 전기 자산총계로 나눈 값

CFO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자산총계로 나눈 값

OUT : 총 임원 중 사외이사의 비중

ID : 산업더미변수

YD : 연도더미변수

ε : 잔차항

Ⅳ. 분석결과

4.1 기술통계량

〈Table 2〉는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을 제시한다. 두 가지의 재량적발생액인 *DA*와 *PMDA*의 평균은 각각 0.003, 0.000로 나타났고, 표준편차는 각각 0.106, 0.083로 나타났다. 관심변수인 회계담당직원의 경력년수(*CAREER*)는 평균 15.3년에 해당하였고, 중위수는 15.1년, 표준편차는 8.325년을 나타냈다. 회계, 감사 및 기타부서에 공인회계사가 소속된 기업은 평균적으로 약 24.9%에 해당하였고, 평균 약 47.2%의 기업에서 회계담당직원을 한국상장회사협의회나 코스닥협회 등 유관단체에 등록(*ENROLL*)하였다. 기업의 규모(*SIZE*)는 평균 19.135에 해당

〈Table 2〉 기술통계

변수명	N	mean	sd	p1	p25	p50	p75	p99
DA	3,310	0.003	0.106	-0.391	-0.036	0.012	0.053	0.350
PMDA	3,310	0.000	0.083	-0.276	-0.039	0.001	0.038	0.295
CAREER	3,310	15.316	8.325	1.500	11.623	15.100	19.100	30.000
CPA	3,310	0.249	0.433	0.000	0.000	0.000	0.000	1.000
ENROLL	3,310	0.472	0.499	0.000	0.000	0.000	1.000	1.000
SIZE	3,310	19.135	1.348	16.837	18.211	18.885	19.769	23.716
DEBT	3,310	0.369	0.203	0.030	0.197	0.367	0.513	0.869
BIG4	3,310	0.425	0.494	0.000	0.000	0.000	1.000	1.000
FOR	3,310	0.075	0.105	0.000	0.014	0.033	0.088	0.528
LAR	3,310	0.394	0.168	0.066	0.265	0.387	0.510	0.785
LOSS	3,310	0.334	0.472	0.000	0.000	0.000	1.000	1.000
BTM	3,310	1.020	0.723	0.082	0.469	0.844	1.388	3.407
L1TA	3,310	-0.029	0.098	-0.414	-0.064	-0.019	0.017	0.227
CFO	3,310	0.035	0.084	-0.244	-0.006	0.037	0.082	0.261
OUT	3,310	0.257	0.154	0.000	0.250	0.250	0.333	0.667

1) 변수의 정의
DA : 수정 Jones 모형(1995)에 의한 재량적발생액
PMDA : Kothari et al. (2005)에 의한 성과대응 재량적발생액
CAREER : 회계담당직원의 회계관련 경력(년수)
CPA : 회계, 감사, 기타부서에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유자가 존재 시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ENROLL : 회계담당직원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유관단체에 등록된 경우 1의 값을 부여
SIZE :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DEBT : 부채구성비율로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눈 값
BIG4 : 대형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을 회사가 선임한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FOR : 기말 현재 외국인투자자 지분율
LAR : 기말 현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비율
LOSS :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BTM : 자기자본의 장부가치를 시가총액으로 나눈 비율
L1TA : 전기 발생액을 전기 자산총계로 나눈 값
CFO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자산총계로 나눈 값
OUT : 총 임원 중 사외이사의 비중

하였으나, 최소 16.837부터 최대 23.716까지 비교적 넓은 분포로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평균 부채비율(*DEBT*)은 약 36.9%에 해당하였고, 평균적으로 표본의 약 42.5%의 기업이 대형 감사인(삼일, 삼정, 안진 및 한영회계법인)을 선임(*BIG4*)하였다. 평균 외국인 지분비율(*FOR*) 및 최대주주 등 지분비율(*LAR*)은 각각 약 7.5% 및 39.4%에 해당하였고, 평균 약 33%의 기업에서 당해연도 손실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을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총 임원 중 25.7%가 사외이사에 해당하였다.

4.2 상관관계분석

〈Table 3〉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변수 간의 피어슨 상관관계 계수값을 제시한다. 먼저 종속변수인 *DA*와 *PMDA*는 선행연구와 같이 0.891의 높은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관심변수인 *CAREER*은 *DA*와는 유의수준 5% 하에서 양(+)의 관련성을 보였으나, *PMDA*와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회계담당직원의 경력(*CAREER*)은 공인회계사 여부(*CPA*)와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으나, 유관단체 등록 여부(*ENROLL*)와는 유의수준 5% 하에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여, 기업에서 경력이 오래된 회계담당직원을 유관단체에 등록함을 알 수 있다. 회계담당직원의 경력(*CAREER*)은 기업의 규모(*SIZE*), 대형 감사인 선임 여부(*BIG4*), 최대주주 지분율(*LAR*) 등과 양의 상관성을 보였으며, 손실보고 여부(*LOSS*)와는 음의 상관성을 보였다. 기업의 회계부서 등에서의 공인회계사 보유 여부(*CPA*)는 직원의 유관단체 등록(*ENROLL*), 기업의 규모(*SIZE*), 대형 감사인 선임 여부(*BIG4*), 외국인 지분비율(FOR)과 양의 관련성을 보였고, 사외이사

〈Table 3〉 상관관계분석

	DA	*PMDA*	*CAREER*	*CPA*	*ENROLL*	*SIZE*	*DEBT*	*BIG4*	*FOR*	*LAR*	*LOSS*	*BTM*	*L1TA*	*CFO*
PMDA	0.891***													
CAREER	0.035**	0.018												
CPA	-0.002	-0.017	-0.008											
ENROLL	-0.003	-0.008	0.039**	0.057***										
SIZE	0.075***	0.043**	0.089***	0.246***	0.247***									
DEBT	-0.221***	-0.094***	0.018	0.013	0.016	0.143***								
BIG4	0.025	-0.002	0.052***	0.185***	0.149***	0.466***	0.029*							
FOR	0.047***	-0.014	0.047**	0.169***	0.116***	0.500***	-0.096***	0.295***						
LAR	0.139***	0.059***	0.034*	0.017	0.123***	0.198***	-0.123***	0.207***	-0.035**					
LOSS	-0.417***	-0.203***	-0.037**	-0.027	-0.071***	-0.234***	0.243***	-0.135***	-0.198***	-0.258***				
BTM	0.080***	0.065***	0.082***	-0.012	0.163***	0.331***	-0.103***	0.123***	0.002	0.274***	-0.102***			
L1TA	0.148***	0.062***	0.053***	-0.015	0.056***	0.135***	-0.136***	0.020	0.040**	0.157***	-0.205***	0.119***		
CFO	-0.245***	-0.538***	0.044**	0.069***	0.049***	0.204***	-0.142***	0.134***	0.208***	0.176***	-0.417***	0.042**	0.148***	
OUT	-0.003	0.010	-0.005	-0.167***	-0.029*	-0.040***	0.039**	-0.078***	-0.021	-0.063***	0.013	-0.064***	0.001	-0.018

1) 변수의 정의는 〈Table 2〉를 참조
2) ***, **, *은 유의수준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비율(*OUT*)과는 음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회계담당직원의 유관단체 등록(*ENROLL*)은 규모가 크고(*SIZE*), 대형감사인을 선임할수록(*BIG4*), 외국인(*FOR*) 및 최대주주(*LAR*)의 지분비율이 높을수록 빈번하게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항인 회계담당직원의 경력(*CAREER*)과 재량적발생액(*DA, PMDA*) 간의 관련성은 이후 절에서 재량적발생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통제한 이후 다변량 회귀분석을 통하여 그 관련성을 조사한다.

4.3 다변량 회귀분석

4.3.1 회계담당직원의 회계관련 경력과 재량적 발생액(연구가설 1)

〈Table 4〉는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과 관련하여, 회계담당직원의 회계관련 경력과 재량적발생액 간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3,310 회사-연도 표본을 대상으로 식 (3)에 의한 재량적발생액(*DA, PMDA*) 모형은 수정설명력이 0.432와 0.548

〈Table 4〉 회계담당직원의 경력과 재량적발생액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 *DA*		Dependent Variable = *PMDA*	
	Coefficient	t-statistics	Coefficient	t-statistics
Intercept	-0.064**	-2.43	-0.107***	-5.68
CAREER	0.000**	2.15	0.000*	1.84
SIZE	0.006***	4.20	0.007***	6.99
DEBT	-0.079***	-8.37	-0.038***	-5.73
BIG4	-0.004	-1.08	-0.002	-0.94
FOR	-0.005	-0.40	-0.006	-0.65
LAR	0.032***	3.17	0.020***	2.93
LOSS	-0.127***	-33.88	-0.082***	-29.77
BTM	-0.001	-0.34	0.001	0.38
L1TA	0.089***	3.74	0.050***	2.97
CFO	-0.683***	-23.31	-0.783***	-37.67
OUT	0.006	0.74	0.009	1.37
Industry dummy	*Included*		*Included*	
Year dummy	*Included*		*Included*	
Num. of Obs.	3,310		3,310	
Adj. R-sq.	0.432		0.548	
F-value	92.68***		147.91***	
MAX VIF	2.15		2.15	

1) 변수의 정의는 〈Table 2〉를 참조
2) ***, **, *은 유의수준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3) t값은 기업 수준에서 클러스터링하여 조정함

로 나타났고, F 값은 각각 92.68 및 147.91로서 유의수준 1%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모형은 적합하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분산팽창계수(VIF)의 최대값도 2.15에 해당하여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에 대한 우려도 낮게 나타났다. 관심변수인 회계담당직원의 회계관련 경력(*CAREER*)은 *DA*(회귀계수 0.0002, t통계량 2.15)와 *PMDA*(회귀계수 0.0003, t통계량 1.84)[5]와 각각 유의수준 5% 및 10%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회계담당직원 또는 회계담당부서장의 경력이 오래될수록, 재량적발생액과 양의 관련성이 있음을 제시하여 이들의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재량적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은 회사의 실무현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회계기준의 유연한 활용이 요구되므로, 회계관련 경력이 길어 이익조정 수단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직원에게 더욱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다(Qi et al., 2018). 또한 회계담당직원은 최고경영진 등 임원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 이들의 이익조정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고, 기존의 회계처리 관행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기 어려워 낮은 회계품질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재량적발생액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의 관련성은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재량적발생액은 기업규모(*SIZE*), 최대주주 지분율(*LAR*)과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였고, 부채비율(*DEBT*), 손실여부(*LOSS*) 및 영업활동 현금흐름 비율(*CFO*)과은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보였다.

4.3.2 공인회계사 존재 및 유관단체 등록의 조절효과(연구가설 2)

〈Table 5〉는 식 (4)에 따라 연구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존재 또는 유관단체 등록이 회계담당직원의 경력과 재량적발생액 간의 양의 관련성에 증분적인 조절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Table 5〉의 좌측 열에 따라 회계담당직원의 경력(*CAREER*)은 *DA*와 유의수준 1% 하에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나타냈고, 경력과 공인회계사의 존재(*CAREER*CPA*; 회귀계수 -0.0009, t통계량 -2.28), 경력과 유관단체에 대한 등록(*CAREER*ENROLL*; 회귀계수 -0.0007, t통계량 -1.89)은 모두 증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보였다. 〈Table 5〉의 우측 열의 PMDA에 의한 결과 역시, 회계담당자의 경력은 유의한 양의 관련성(회귀계수 0.0006, t통계량 2.39)을 보였으며, 경력과 공인회계사 여부(*CAREER*CPA*)는 증분적인 음의 관련성(회귀계수 -0.0006, t통계량 -2.18)을, 경력과 유관단체 등록(*CAREER*ENROLL*) 역시 증분적인 음의 관련성(회귀계수 -0.0005, t통계량 -1.70)을 보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회계담당직원의 경력과 재량적발생액 간에 양의 관련성이 존재하지만, 회계부서 등에 회계전문가인 공인회계사가 존재할 경우 자체적인 모니터링 효과(Shin et al., 2014, Choi, 2020)가 존재하여 회계담당직원의 경력이 길더라도 이익조정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을 제시한다. 또한 회계담당직원이 유관단체에 등록될 경우, 실명 등록과 유관단체 관리 등에 대한 자체적인 규율효과가 작용하고, 회계담당직원의 책임

5) 연구논문의 본문에서 제시된 회귀계수의 값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시하였으며, 〈Table 4〉부터 〈Table 9〉의 회귀계수 값은 표기상의 일관성을 위하여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시하였다.

〈Table 5〉 공인회계사 여부 및 유관단체 등록 여부의 조절효과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 *DA*		Dependent Variable = *PMDA*	
	Coefficient	t-statistics	Coefficient	t-statistics
Intercept	-0.076***	-2.82	-0.116***	-6.03
CAREER	0.001***	2.74	0.001**	2.39
CPA	0.016**	2.21	0.009*	1.91
ENROLL	0.003	0.41	0.001	0.36
*CAREER*CPA*	-0.001**	-2.28	-0.001**	-2.18
*CAREER*ENROLL*	-0.001*	-1.89	-0.001*	-1.70
SIZE	0.006***	4.21	0.007***	7.05
DEBT	-0.079***	-8.34	-0.037***	-5.71
BIG4	-0.003	-0.93	-0.002	-0.79
FOR	-0.005	-0.34	-0.006	-0.59
LAR	0.034***	3.28	0.021***	3.03
LOSS	-0.127***	-33.93	-0.082***	-29.83
BTM	0.000	0.03	0.001	0.65
L1TA	0.090***	3.80	0.051***	3.01
CFO	-0.684***	-23.45	-0.783***	-37.84
OUT	0.008	0.88	0.009	1.42
Industry dummy	*Included*		*Included*	
Year dummy	*Included*		*Included*	
Num. of Obs.	3,310		3,310	
Adj. R-sq.	0.435		0.550	
F-value	81.51***		129.59***	
MAX VIF	6.92		6.92	

1) 변수의 정의는 〈Table 2〉를 참조
2) ***, **, *은 유의수준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3) t값은 기업 수준에서 클러스터링하여 조정함

성이 제고되어 회계담당직원의 경력과 이익조정 간의 양의 관련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가설 2)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회계부서 내 공인회계사의 존재 및 회계담당직원의 유관단체 등록이, 직원의 경력과 재량적발생액간의 관련성을 약화시키는 조절요인임을 제시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공인회계사 등 회계전문가의 채용이 기업의 회계품질에 기여하는 것을 시사하며, 또한 최근 정책당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회계담당직원의 실명제 등록과 관리, 공시가 회계품질에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4.4 추가분석 및 강건성분석

4.4.1 회계부서 규모 및 회계담당자 교육수준의 조절효과

선행연구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부서의 규모(Ryu et al., 2012, Lee et al., 2012, Yang and Yeo, 2016, Hwang et al., 2020 외)와 회계담당자의 교육정도(Qi et al., 2018)는 회계품질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Table 6〉에서는 회계담당직원의 경력과 재량적발생액 간의 관련성에, 회계부서의 규모나 직원의 교육수준이 또 다른 조절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여부를 추가로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모형 (3)에 회계부서의 규모(*PORTEAM*) 및 경력과 회계부서의 규모와의 상호작용효과(*CAREER*PORTEAM*)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와, 역시 연구모형 (3)에 회계담당직원의 당기 교육시간(*EDU*) 및 경력과 교육시간과의 상호작용효과(*CAREER*EDU*)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분석 결과, 〈Table 6〉 Panel A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회사에서 회계부서가 차지하는 규모는 회계담당직원의 경력과 재량적발생액(*DA, PMDA*) 간의 관련성을 감소시키는 증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Panel B와 같이 회계담당직원의 경력과 교육시간의 상호작용효과(*CAREER*EDU*) 역시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공인회계사 존재 및 유관단체 등록과 달리, 회계부서의 규모 및 직원의 교육정도가 조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경력에 따른 이익조정 간의 관련성을 제어하는 통제수단이 기업 실무에 차별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제시하는 결과이다.

4.4.2 회계담당임원의 회계관련 경력과 재량적발생액

회계담당직원 외에 회계담당임원의 업무경험 역시 재량적발생액과 관련성이 존재할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계담당임원의 회계관련 경력(*EXEC*)과 재량적발생액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역시 공인회계사 존재 여부(*EXEC*CPA*) 및 임원의 유관단체 등록(*EXEC*ENROLL*)이 조절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추가로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Table 7〉 (1), (3)열의 연구 결과와 같이 임원의 회계관련 경력(*EXEC*)은 *DA, PMDA*와 통계적인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Table 7〉 (2), (4)열의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공인회계사 여부 및 유관단체 등록도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경력이 길수록 회계담당임원 등 경영진의 이익조정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회계담당직원과는 달리, 회계담당임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익조정의 지시자로서 해당경력이 중요하지 않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4.4.3 2인 이상의 회계담당직원에 대한 공시를 수행한 경우의 효과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발적 공시의 수준은 기업의 정보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다(Botosan, 1997, Dhaliwal et al., 2011). 회계담당자의 추가정보 공시 의무화와 관련하여 일부 상장법인은 회계부서장 등 1인을 대표하여 공시하지 않고, 2인 이상의 회계담당직원에 대한 세부내용을 확대하여 공시하고 있다. 전체 표본의 약 11%인 374 회사-연도가 2인 이상의 회계담당직원을 공시하였고, 표본을 분리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Table 8〉과 같이 본

〈Table 6〉 회계부서 규모 및 회계담당자 교육수준의 조절효과[15)]

Panel A: 회계부서의 규모의 효과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 *DA*		Dependent Variable = *PMDA*	
	Coefficient	t-statistics	Coefficient	t-statistics
Intercept	-0.041	-1.60	-0.090***	-4.81
CAREER	0.000*	1.85	0.000**	2.24
PORTEAM	-0.131	-1.14	-0.0446	-0.53
*CAREER*PORTEAM*	-0.002	-0.34	-0.0056	-1.15
Controls	*Included*		*Included*	
Industry dummy	*Included*		*Included*	
Year dummy	*Included*		*Included*	
Num. of Obs.	3,310		3,310	
Adj. R-sq.	0.436		0.552	
F-value	90.67***		144.57***	
MAX VIF	5.94		5.94	

Panel B: 회계담당직원 교육시간의 효과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 *DA*		Dependent Variable = *PMDA*	
	Coefficient	t-statistics	Coefficient	t-statistics
Intercept	-0.065**	-2.48	-0.109***	-5.73
CAREER	0.000**	2.25	0.000**	2.19
EDU	0.000	1.16	0.000	1.55
*CAREER*EDU*	0.000	-0.72	0.000	-1.32
Controls	*Included*		*Included*	
Industry dummy	*Included*		*Included*	
Year dummy	*Included*		*Included*	
Num. of Obs.	3,310		3,310	
Adj. R-sq.	0.0433		0.0549	
F-value	69.38***		138.03***	
MAX VIF	8.67		8.67	

1) 다음의 변수 외의 변수정의는 〈Table 2〉를 참조

변수명	N	mean	sd	p1	p25	p50	p75	p99
PORTEAM	3,310	0.032	0.044	0.000	0.010	0.019	0.036	0.294
EDU	3,310	23.505	74.452	0.000	0.000	1.000	19.000	350.000

변수설명

PORTEAM : 회계부서의 인원 수를 전체 임직원 수로 나눈 비율

EDU : 회계담당직원의 당기 교육시간

2) ***, **, *은 유의수준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3) t값은 기업 수준에서 클러스터링하여 조정함.

15) 〈Table 5〉부터 〈Table 6〉에 표기된 회귀계수 0.000은 회귀계수를 소숫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결과로서, 0.0001부터 0.0004까지의 양수 값을 의미한다.

〈Table 7〉 회계담당임원의 경력과 재량적발생액과의 관련성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 *DA*				Dependent Variable = *PMDA*			
	(1)		(2)		(3)		(4)	
	Coef.	t-stat.	Coef.	t-stat.	Coef.	t-stat.	Coef.	t-stat.
Intercept	-0.067**	-2.22	-0.072***	-2.34	-0.104***	-4.98	-0.107***	-5.08
EXEC	0.000	1.56	0.000	1.48	0.000	1.11	0.000	1.40
CPA			-0.002	-0.27			-0.000	-0.21
EXEENR			0.006	0.95			0.005	1.18
*EXEC*CPA*			0.000	0.79			0.000	0.60
*EXEC*EXEENR*			-0.000	-1.47			-0.000	-1.55
SIZE	0.006***	3.72	0.006***	3.67	0.007***	6.06	0.006***	5.95
DEBT	-0.073***	-6.97	-0.074***	-7.02	-0.031***	-4.28	-0.032***	-4.32
BIG4	-0.004	-0.92	-0.004	-0.94	-0.002	-0.83	-0.002	-0.85
FOR	-0.023	-1.33	-0.022	-1.32	-0.016	-1.39	-0.016	-1.38
LAR	0.025**	2.08	0.025**	2.11	0.016**	2.07	0.016**	2.09
LOSS	-0.129***	-29.24	-0.129***	-29.24	-0.084***	-28.59	-0.084***	-28.56
BTM	0.000	0.08	0.000	0.13	0.001	0.87	0.001	0.88
L1TA	0.085***	3.27	0.085***	3.26	0.048***	2.66	0.048***	2.65
CFO	-0.685***	-21.12	-0.686***	-21.13	-0.791***	-36.47	-0.792***	-36.43
OUT	0.004	0.39	0.004	0.40	0.005	0.72	0.005	0.72
Industry dummy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Year dummy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Num. of Obs.	2,509		2,509		2,509		2,509	
Adj. R-sq.	0.436		0.437		0.562		0.562	
F-value	92.45***		80.52***		147.70***		128.56***	
MAX VIF	2.24		6.43		2.24		6.43	

1) 다음의 변수 외의 변수정의는 〈Table 2〉를 참조

변수명	N	mean	sd	p1	p25	p50	p75	p99
EXEC	2,509	19.521	11.838	1.000	13.000	20.541	26.245	40.282
EXEENR	2,509	0.427	0.495	1.000	1.000	1.000	1.000	1.000

변수설명

EXEC : 회계담당임원의 회계관련 경력(년수)

EXEENR : 회계담당임원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유관단체에 등록된 경우 1의 값을 부여

2) ***, **, *은 유의수준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3) t값은 기업 수준에서 클러스터링하여 조정함

〈Table 8〉 2인 이상의 회계담당직원 공시 여부에 따른 결과

Variables	Disclosure of 2 or more employees				Disclosure of an employee			
	(1) *DA*		(2) *PMDA*		(3) *DA*		(4) *PMDA*	
	Coef.	t-stat.	Coef.	t-stat.	Coef.	t-stat.	Coef.	t-stat.
Intercept	-0.069	-0.72	-0.146**	-2.05	-0.075**	-2.46	-0.113***	-5.29
CAREER	-0.001	-0.52	0.000	0.14	0.001***	3.56	0.001***	2.98
CPA	-0.028	-1.13	-0.016	-0.92	0.020	2.59	0.012	2.28
ENROLL	-0.035	-1.51	-0.028*	-1.68	0.005	0.91	0.004	0.90
*CAREER*CPA*	0.001	0.34	0.000	0.21	-0.001**	-2.24	-0.001**	-2.16
*CAREER*ENROLL*	0.001	0.83	0.001	0.91	-0.001**	-2.36	-0.001**	-2.10
Controls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dustry dummy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Year dummy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Num. of Obs.	374		374		2,936		2,936	
Adj. R-sq.	0.475		0.567		0.438		0.554	
F-value	11.14***		16.33***		72.99***		116.35***	

1) 변수정의는 〈Table 2〉를 참조
2) ***, **, *은 유의수준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3) t값은 기업 수준에서 클러스터링하여 조정함

연구의 주요 결과는 2인 이상의 회계담당직원에 대하여 확대 공시행태를 보인 기업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회계담당직원의 실명 등 세부내역을 자발적,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공시하는 관행이 있는 기업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정보위험이 낮아 직원 경력 장기화에 따른 회계품질의 악화 가능성이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4.4.4 연도별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사용된 표본을 2018년과 2019년의 표본으로 구분하고, 식 (3) 및 (4)에 따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9〉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회계담당직원의 경력과 재량적발생액 간의 관련성은 회계연도와 무관하게 모두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였다. 다만 공인회계사 존재 여부 및 유관단체 등록 여부의 조절효과는 〈Table 9〉에서와 같이 2019 회계연도에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18 사업연도 이후 시행되고 있는 신외부감사법 등 회계개혁법안의 실행에 따른 단계적인 감사환경 및 재무보고품질 개선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4.5 회계담당임원의 회계관련 경력을 통제변수로 포함한 경우의 분석

회계담당직원 뿐만 아니라 CFO, CAO(Chief Accounting Officer) 등 회계담당임원은 회계담당

〈Table 9〉 연도별 회귀분석 결과

Variables	2018 fiscal year				2019 fiscal year			
	(1) *DA*		(2) *PMDA*		(3) *DA*		(4) *PMDA*	
	Coef.	t-stat.	Coef.	t-stat.	Coef.	t-stat.	Coef.	t-stat.
Intercept	-0.064	-1.56	-0.1243	-4.32	-0.078*	-1.92	-0.096***	-3.32
CAREER	0.001**	1.99	0.001*	1.87	0.001***	2.75	0.001**	2.28
CPA	0.006	0.47	0.004	0.47	0.023**	2.46	0.013**	1.97
ENROLL	0.001	0.08	0.002	0.27	0.003	0.41	0.000	-0.01
*CAREER*CPA*	-0.000	-0.51	-0.000	-0.50	-0.001**	-2.26	-0.001**	-1.99
*CAREER*ENROLL*	-0.000	-0.64	-0.000	-0.50	-0.001**	-2.00	-0.001*	-1.71
Controls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dustry dummy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Year dummy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Num. of Obs.	1,553		1,553		1,757		1,757	
Adj. R-sq.	0.446		0.572		0.435		0.523	
F-value	40.89***		70.17***		44.36***		65.24***	

1) 변수정의는 〈Table 2〉를 참조
2) ***, **, *은 유의수준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3) t값은 기업 수준에서 클러스터링하여 조정함

직원과의 친분이나 영향력과 관련될 수 있어 이익조정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식 (3) 및 (4)의 연구모형에 회계담당임원의 회계관련 경력을 통제변수로 포함한 경우의 연구결과를 보고한다. 지면 관계상 별도의 Table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회계담당임원의 회계관련 경력을 포함한 경우에 〈Table 4〉 및 〈Table 5〉의 주요한 연구결과는 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4.4.6 회계담당직원의 경력이 0인 경우를 포함한 경우의 분석

회계담당직원에 대한 공시 실무 상 일부 기업의 경우 회계담당직원의 경력을 0을 기재하거나, 경력란에 "-"의 항목으로 기재한 경우가 존재한다. 해당 공시항목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역시 본 연구의 〈Table 4〉 및 〈Table 5〉에 나타난 관심변수의 주요 결과는 동일하게 유지되어, 기업의 해당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공시품질과는 무관하게 본 연구결과가 강건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4.4.7 회계담당직원의 경력의 자연로그 값을 이용한 분석

회계담당직원의 회계관련 경력년수가 아닌 이분산성 감소를 위하여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이용한 분석 결과는 본 연구의 주된 결과인 〈Table 4〉 및 〈Table 5〉와 일관되게 나타났다.

Ⅴ. 결 론

최고경영진 또는 임원의 개별적 특성에 대하여 활발히 이루어진 선행연구와 달리, 재무보고품질을 위한 정보를 생산해 내는 주체인 직원의 특성에 대해서는 자료의 제약 등으로 연구가 제한적으로 수행되었다. 실무 상 이익조정이 경영진 혼자서는 수행할 수 없고, 회계부서나 재무부서의 직원이 관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회계담당직원의 다양한 특성에 대한 연구는 재무보고품질의 결정요인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Hong, 2017). 본 연구는 2018년부터 제도 변경에 따라 새롭게 공시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상의 회계담당직원의 공시자료(경력, 유관단체 등록여부, 교육시간 등)를 활용하여 회계담당직원의 경력이 재량적발생액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또한 회계 또는 유관부서 내에 공인회계사가 존재하거나, 회계담당직원을 유관단체에 등록하여 담당자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경력과 재량적발생액 간의 관련성에 어떠한 조절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조사하였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 간 3,310 회사-연도를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회계담당직원의 회계관련 경력은 재량적발생액과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회계담당직원의 회계관련 경력이 오래될수록 회사 내 실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익조정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용이하고, 최고재무책임자 등 임원과의 친밀 가능성이 높아 경영진의 이익조정 요구에 대한 수용도가 높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다만 이와 같은 회계담당직원과 재량적발생액 간의 양의 관련성은 회계부서 내에 공인회계사와 같은 회계전문가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에 의한 회계품질의 모니터링이 가능하여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회계담당직원이 유관단체(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에 등록된 경우, 회계담당직원의 책임성, 유관단체에 의한 관리 가능성 및 감독기관에 대한 가시성의 영향으로 역시 경력과 재량적발생액 간의 관련성이 증분적으로 감소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공헌점 및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흡한 회사 회계담당자의 특성 중 회계관련 경력에 집중하여 재량적발생액과의 관련성을 실증 결과로 제시하였다. 회계담당직원의 경력과 재량적발생액 간의 양의 관련성을 제시한 본 연구의 결과는 재무보고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회계담당 부서내의 주기적 직무순환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둘째, 본 연구는 회계부서 내 공인회계사의 채용과 유지, 회계담당자의 유관단체 등록이 일정한 재무보고품질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하여 정보의 생산주체인 기업뿐만 아니라 정책당국과 자본시장에도 회계담당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회계품질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셋째, 본 연구결과는 상장회사 회계담당자 실명제 등 기업의 회계역량에 대한 공시 강화를 주도하고 있는 감독당국의 정책방향의 합리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상기의 공헌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다음의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어, 연구결과의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첫째, 본 연구는 회계담당직원의 경력과 재량적발생액에 대한 관련성만을 제시할 뿐,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못하며 실물이익조정 등 다른 이익조정의 가능성을 완전하게 조사하지 못한 한계점을 갖는다. 둘째, 본 연구는 2018년부터 공표되는 새로운 기업의 공시자료를 활용하였으나, 일부 공시 실무 상 회계담당직원의 경력정보가 0 또는 부정확한 수치로 기재

되어 자료 상의 이용된 자료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회계담당직원의 경력 역시 회사가 공시자료로 제시한 대표직원 1인에 대한 경력자료로서 전체 회계담당직원의 수치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Hong(2017)에 따르면, 이익조정 정도가 큰 비윤리적 기업에 대한 직원의 평균근속연수가 낮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하며, 이는 본 연구의 결과가 역인과성(reverse causality)이나, 내생성에 따른 편의가 존재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모형 등에 고려하지 못한 요인이 잔존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부분은 향후 연구에서 보다 정치한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보완하여야 할 과제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Aier, J. K., J. Comprix, M. T. Gunlock, and D. Lee(2005), "The financial expertise of CFOs and accounting restatements," *Accounting Horizons*, 19(3), pp.123-135.

Barua, A., L. F. Davidson, D. V. Rama, and S. Thiruvadi(2010), "CFO gender and accruals quality," *Accounting Horizons*, 24(1), 25-39.

Botosan, C. A(1997), "Disclosure level and the cost of equity capital," 72(3), *The Accounting Review*, pp.323-349.

Call, A. C., J. L. Campbell, D. S. Dhaliwal, and J. R. Moon Jr(2017), "Employee quality and financial reporting outcom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64(1), pp.123-149.

Choi, H. J. (2020), "The Characteristics of Human Resource in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and Earning Persistence,"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33(5), pp.1657-1684.

Dechow, P. M., R. G. Sloan, and A. P. Sweeney (1995),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The Accounting Review*, 70(2), pp.193-225.

Dhaliwal, D. S., O. Z. Li, A. Tsang, and Y. G. Yang (2011), "Voluntary nonfinancial disclosure and the cost of equity capital: The initiat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porting," *The Accounting Review*, 86(1), pp.59-100.

Dyck, A., A. Morse, and L. Zingales(2010), "Who blows the whistle on corporate fraud?," *The Journal of Finance*, 65(6), pp.2213-2253.

Francis, B., I. Hasan, J. C. Park, and Q. Wu(2015), "Gender differences in financial reporting decision making: Evidence from accounting conservatism,"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32(3), pp.1285-1318.

Habib, A., and M. Hossain(2013), "CEO/CFO characteristics and financial reporting quality: A review," *Research in Accounting Regulation*, 25(1), pp.88-100.

Hong, S. W. (2017), "Earnings Management and the Average Length of Service," *Korean Journal of Management Accounting Research*, 17(3), pp.99-122.

Huang, H. W., E. Rose-Green, and C. C. Lee(2012), "CEO age and financial reporting quality," *Accounting Horizons*, 26(4), pp.725-740.

Hwang, K. J., P. K. Kang, and D. J. Jung(2020), "The Association between Human Resources Investments in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and Unfaithful Disclosure Designations," *Korean Journal of Management Accounting Research*, 20(2), pp.55-78.

Ji, S. H., Y. R. Ryu, and K. B. Lee(2013), "The

Earnings Management Based on In-house Accounting-Disclosure Expert and Professionalism of In-house Accounting-Disclosure Expert," *Accounting Information Review*, 31 (1), pp.1-35.

Jones, J. J. (1991), "Earnings management during import relief investigation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9(2), pp.193-228.

Jung, J. H., and H. Y. Ma(2012), "The Effect of Human Resource Characteristics of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on Earnings Quality," *Korean Corporation Management Review*, 19(4), pp.101-117.

Kim, H, A., and N. C. Jung(2020), "The Association between Career of Accounting Officers and Audit Hours,"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35(3), pp.71-90.

Kim, J. K., S. M. Yu, and H. J. Kim(2013), "The effect of characteristics of human resources in internal control system on a firm's implied costs of equity capital," *Study on Accounting, Taxation & Auditing*, 55(2), pp.277-321.

Kothari, S. P., A. J. Leone, and C. E. Wasley(2005), "Performance matched discretionary accrual measur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9(1), pp.163-197.

Lee, E. C., W. Y. Kim, and K. B. Hue(2012), "The Characteristics of Human Resources in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and the Transparency of Accounting," *Accounting Information Review*, 30(4), pp.57-81.

Lee, J. I., S. H. Choi, and J. H. Choi(2010), "The Association between Human Resource Investment in Internal Control and Audit Fees," *Study on Accounting, Taxation & Auditing*, 51, pp.191-225.

Liang, C., B. Lourie, A. Nekrasov, and P. E. Yeung (2021), "Female Accounting Employees and Internal Control Quality," *Working Paper*.

Moon, D. C., W. J. Park, and S. I. Lee(2012), "The Effect of Characteristics of Human Resources in Corporate Governance on Reliabiliy of Accounting Information-Emphasis on FSS Enforcement Action," *Journal of Taxation and Accounting*, 13(4), pp.279-308.

Park, J. I., and K. Choi(2009), "The Effect of Abnormal Audit Fees and Audit Hours on Discretionary Accruals," *Journal of Taxation and Accounting*, 10(3), pp.257-293.

Peni, E. and S. Vähämaa(2010), "Female executives and earnings management," *Managerial Finance*, 36(7), pp.629-645.

Qi, B., J. W. Lin, G. Tian, and H. C. X. Lewis(2018), "The impact of top management team characteristics on the choice of earnings management strategies: Evidence from China," *Accounting Horizons*, 32(1), pp.143-164.

Rakhman, F(2009), "Earnings quality and CFO financial expertise," Oklahoma State University. *Dissertations Paper*.

Ryu, H. Y., H. Y. Lee, and S. J. Chae(2012), "The Effect of Characteristics of Human Resources in Internal Accounting Control on the Occurrence of Accounting Error," *Korean Management Review*, 41(6), pp.1347-1373.

Shin, I. H., H. Y. Lee, and E. C. Lee(2014), "The Effect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Investment in Internal Accounting Management Systems on Analysts' Forecast : An Analysis on Financial Department," *Study on Accounting, Taxation & Auditing*, 56(1), pp.57-88.

Suh, Y. H., J. S. Han, B. S. Shin, and J. I. An (2018), "The Effect of Human Resource

Investment in Internal Control on Rank-specific Audit Hours and Audit Quality," *Korean Accounting Review*, 43(1), pp.81-117.

Wells, K. (2020), "Who manages the firm matters: The incremental effect of individual managers on accounting quality," *The Accounting Review*, 95(2), pp.365-384.

Yang, J. S., and Y. J. Yeo(2016), "Human Resource Investment for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and Financial Reporting Quality," *Korean Journal of Management Accounting Research*, 16(1), pp.75-107.

Zhang, D. (2019), "Top management team characteristics and financial reporting quality," *The Accounting Review*, 94(5), pp.349-375.

• The author Namchul Jung is currently an assistant professor in th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Hongik University. He received his Ph. D. from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and worked at Deloitte Anjin and BC Card Co., Ltd. His major research areas include audit quality, disclosure, and other fields of auditing and financial accounting.